



KGF한국골프연맹 조성미 사무국장

골퍼의, 골퍼에 의한, 골퍼를 위한 연맹이 발족했다. 지난 5월 발족한 한국골프연맹(이하 KGF)이 그 주인공이다. KGF는 발족한지 얼마 되지 않은 신생 연맹이지만 프로뿐만 아니라 아마추어까지 골프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문을 두드릴 수 있는 연맹으로서 KGF가 많은 골퍼들을 위해 나눔과 배려를 통한 새로운 골프 생태계를 조성하는데 일조를 하기 위해 힘찬 날갯짓을 시작했다.

나눔과 배려를 통한 행복 공동체

작금의 남자프로골프 시장은 매우 침체되어 있다. 여자프로와 달리 남자프로는 대회도 별로 없고, 있던 대회마저도 원아시아 투어로 넘어가서 현재 남자프로골프협회에서 진행하는 대회는 전무한 지경에 이르렀다. 시드권을 부여받은 소수의 프로들을 제외한 몇 천 명의 선수들은 직업을 잃은 것과 다름없게 되었다. 그들을 보호해줘야 할 연맹이 힘을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남자프로골프를 위기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는 것은 회원들의 단체인 연맹과 협회의 노력뿐입니다. 회원들을 위해 바른 소리를 하며 바른 길을 열어 돌파구를 찾아줘야 하지만 그런 부분이 너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저희 KGF는 정말 단체다운 단체, 오직 선수들을 위한 비영리단체로서 기존의 골프생태계를 바꾸고 싶습니다. 골퍼들을 위해 탄생했고, 프로뿐만 아니라 아마추어까지 함께 하는 정말 바르고 진정한 연맹을 만들고자 합니다.”

KGF의 가장 큰 모토는 바로 ‘나눔과 배려’다 또한 이를 통해 ‘행복한 골프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다. 정적을 바탕으로 전문성을 가지고 일하며 투명한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것. 공감을 바탕으로 뜻이 맞는 사람들과 협력하여 창의적인 방법으로 회원들과 끊임없이 소통하는 것. 헌신을 바탕으로 지역의 네트워크를 활용해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것. 이 모든 것을 통합해 골프산업의 발전과 골프대중화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이 KGF의 설립 취지이자 최종목표인 것이다.

그들만의 리그가 아닌 ‘우리 모두의 리그’를 위해

“지금까지의 투어전은 시드권을 얻은 몇몇 선수들만의 리그였습니다. 골프방송관계자들은 선수 20명만으로 시합을 했으면 좋겠다고 하더군요. ‘그들’안에 속하지 못한 수많은 선수들은 대회를 나가도 싶어도 나갈 수 없는 실정입니다. 심지어 앞으로 투어에 나와야 하는 어린선수들은 국내에 대회가 부족해 중국과 일본으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때문에 저희는 기존의 좁은 관문을 넓혀서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많은 선수들이 투어 안에서 경쟁을 통해 실력을 쌓아갈 수 있도록 다양한 투어 프로그램을 진행할 것입니다.”

KGF는 정규투어인 릴레이투어(정규투어, 로컬투어, 이벤트투어)를 비롯해 신인선수 발굴 육성을 지원하는 행복투어와 KGF 프로 골퍼원로들의 명예회복 및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일자리 창출의 효과까지 있는 시니어투어 등의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투어에 활동하기 위해서는 선발전을 거쳐야 하며 국내의 모든 선수들이라면 참여가 가능하다. KPGA에 가입되어 있는 선수는 그 공신력을 인정해 올해에 한해 100만원의 입회비를 20만원으로 할인해주고 있다. 12개 지역에서 이뤄지고 있는 로컬투어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더불어 유망주 발굴에 그 목표가 있고, 프로암

대회인 이벤트투어는 골프의 대중화에 앞장서려는 취지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시드제 대신 ‘월요일선제’를 시행한다. 예선전에서 탈락해도 다음 주에 다시 도전할 수 있도록 하여 선수들이 1년 내내 시합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골프인재 육성을 위한 아카데미과정

아카데미는 공정한 시스템을 통하여 선수, 골프장, 후원자를 위한 새로운 골프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자질이 우수한 저소득계층 등의 신인을 발굴, 육성 지원해 골프를 통한 자아실현에 기여하며 이와 동시에 골프 인구를 늘리는 것에 목표를 둔다.

회원은 청소년회원, 일반회원, 전문가회원으로 분류되며 청소년과 일반회원의 아카데미과정은 ‘KGF 골프인재육성센터’를 통해 이루어진다. 입회비 없이 연회비 15만원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본 과정은 선수들의 경비를 감소시키기 위해 나눔 하우스를 운영하며 체육과학연구소를 통해 전문체력측정 및 기술향상을 도모한다. 그중에서도 특히 청소년회원을 위해 키다리회원단과

장학금 지급이 이뤄진다. 전국의 모든 대회에서 3위 이상의 성적을 거뒀을 경우 100만원의 장학금을 지원하며 업체들과 연결하여 청소년들이 마음 편히 골프에 전념할 수 있도록 기업체후원 연결도 해 준다. 이로써 ‘나눔과 배려’라는 취지에 맞게 기업체는 좋은 일을 할 수 있고 청소년들은 꿈을 키울 수 있어 일석이조(一石二鳥)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전문가회원으로 구성된 지도자과정은 실기테스트를 거쳐서 선발되며, 투어는 남자선수들만 가능하지만 지도자과정은 여성들도 가능하다. 일선에서 투어를 하다가 바로 지도자로 전환하는 골퍼는 지도자 과정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확실히 전문 지식이 부족하다. 때문에 KGF는 투어회원과 지도자회원을 철저하게 구분 지었다. 실기테스트와 서류심사 및 면접, 오리엔테이션을 수료하고 학점제를 통해 산하기관 협력이나 인터넷강의 등을 이용해서 레벨 1,2,3과정을 거친 후 논문발표인 마스터과정까지 거쳐야 진정한 지도자로 거듭나는 것이다.

회원들을 위한 아낌없는 노력

KGF는 골퍼들에 의해 만들어진 연맹답게 선수들의 입장에서 서서 아낌없는 지원을 위해 노력한다. 그 첫 번째로는 로컬투어에 나온 선수들에게 그린피를 받지 않는다. 대회에서 3-4위를 했을 경우 그 상금으로 그린피를 내고 나면 남는 돈은 전무하다. 그러나 KGF는 그린피를 받지 않기 때문에 그 금액마저도 순수한 ‘상금’이 된다. 두 번째는 골퍼들의 명예회복이다. 현재 골퍼가 올림픽 정식종목으로 채택되면서 국위선양의 종목으로 부상하고 있지만 정작 국내프로들은 4대 보험의 적용은 물론 대출도 쉽게 되지 않는다. 이대로 간다면 그들의 명예는 실추되고 어쩌면 극빈층으로 전락할지도 모르는 상황이다. 때문에 KGF는 시도자치단체들과 긴밀한 연결을 통해 실업팀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이 외에도 대중골프장협회와 협력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골프장과 의 협약을 통해 그린피 할인 등의 제휴도 준비 중에 있으며, 이벤트투어를 통해 스크린 골프 인구를 그린으로 불러 모을 예정이다. 또한 PGA빌리지와 같이 연맹에서 골프장을 직접 운영해 대회유치와 선수들의 훈련장소 제공은 물론이고 시니어프로들이 본인들의 특기를 심분 발휘할 수 있는 일자리창출의 기회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차근차근 투어를 안정화 시키고 아카데미를 통해 제대로 된 골프인재를 육성해 나갈 것입니다. 지금까지 한국골프계가 걸음만 성장해 왔고 저 밑까지 바라보지 못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힘들어 하고 있는 많은 골퍼들에게 저희 연맹이 나눔과 배려로 힘이 되고 싶습니다. 이런 저희를 따듯한 시선으로 바라보며 같이 동참하고, 같이 나섰으면 좋겠습니다.”

KGF의 등장으로 인해 협회의 양분화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심심치 않게 들려온다. 하지만 이것은 표피적인 것만 바라본 것으로 공신력을 가진 KPGA와 회원들을 위한 KGF가 ‘적대’가 아닌 ‘공생’의 길로 접어들었다면 침체되어 있는 남자프로골프를 살릴 수 있을 것이라 예상된다. 대한민국 골프계의 깨끗하고 투명한 바로미터가 되어 든든한 토양에서 새로운 골프생태계를 조성해 놀라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앞으로의 KGF의 행보에 관심을 기울여보자.

“나눔과 배려를 통한 새로운 골프 생태계를 조성하는데 일조를 하고 싶습니다.”

